

게시판

미국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展 롯데월드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8월 28일까지 롯데월드 화랑에서 '미국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전'을 무료 전시한다. 매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전시관 도우미가 전시된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삽화그리기와 퍼즐 맞추기도 함께 진행된다. (02)411-4780

탁본 해보실래요 국립김해박물관은 비문, 당초문 등을 탁본할 수 있는 기회와 토기복원 과정을 알아 볼 수 있는 상설체험학습코너를 8월 28일까지 운영한다. (055)325-9333



노후준비 이렇게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60·70대 서울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프로그램 수강생을 8월 27일까지 모집한다(사진). 건강 및 재테크 방법 등을 강의하며 교육기간은 8월 19일~12월 2일까지. (02)929-7950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을 연꽃마을 송파가정봉사원지원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밀반찬을 배달할 자원봉사자를 연중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02)2202-3677

자원봉사자 모집 옹호사회복지관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노인 주간주말보호센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를 맡을 대학생 및 일반인 자원봉사를 모집한다. (051)628-6737

20면 상식 퍼즐 정답

구	기	자	원		
산	아	르	헨	티	나
선		포			무
문	도				아
수					미
체	남	처	분		타
마	조		마	에	불



해마루촌 시냇가에 죽대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아이들.



여름철 벌이 호박잎쌈을 먹기위해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호박잎을 따고 있다.

고향의 맛 느끼며 추억 만들기



팜스테이 할 수 있는 곳

농촌은 도시인들에게 몸과 마음의 쉼터다. 부모에게 어릴 적 고향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에게 낯선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 5일근무제 시행과 함께 '팜스테이'가 도시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팜스테이란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머문다는 의미의 스테이(stay)의 합성어로 시골집에 머물면서 휴양하거나 주변의 농업과 농촌문화, 레포츠 프로그램, 지역축제를 즐기는 것이다. 이번 주말은 가족과 함께 팜스테이를 이용해 추억과 낭만을 만끽해 보는 어떨까.



수확의 기쁨! 어린이가 고사리손으로 옥수수 수확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 해마루촌 - 민통선에서 즐기는 특별한 전원생활

민통선 안에 있는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에서는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 지역 특산물인 장단콩으로 만든 손두부 맛 또한 일품이다. 내동천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붕어 등 민물고기를 잡는 재미도 쏠쏠하다. 마을 주변 산의 황돛길 산책도 좋은 추억거리다. 주변엔 제3광굴, 도라전망대, 임진각 등 인보관광지가 많고 임진강으로 나가 황포돛배를 타며 늦여름의 정취를 맘껏 누릴 수도 있다. (031)953-5121

전북 남원 달궁마을 - 울창한 원시림과 기암괴석 '장관'

2천 년 전 마한 효왕이 피난해와 궁의 이름을 '달궁'이라 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했다. 울창한 원시림과 기암괴석이 있다. 지리산 자락의 달궁계곡은 반선에서 달궁까지 5km 정도가 가장 좋다. 구산선로 중 하나인 실상사도 가깝다. (063)636-3072

전남 장성 금곡마을 - 영화촬영지서 영화속으로

영화 '태백산맥' '내 마음의 풍금' 등의 촬영지로 2002년 영화민속마을로 지정돼 1950~60년대 풍으로 새 단장을 했다. 한 쪽의 수채화처럼 초가, 돌담, 갈나무, 구불구불한 길 등이 조성과 있어 추억 속 동네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하다. 울창한 소나무 산림욕장도 인근에 있다. (061)393-4231

경북 문경 궁터마을 - 버섯 따고 찻잔 만들기

덜컹덜컹 비포장도로를 따라 들어가는 산골마을. 5개 농가가 버섯을 따고, 나무를 깎아 찻잔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건강체험 팜스테이를 운영한다. 여름 계절에서 물고기와 다슬기를 잡을 수 있다. 문경새재도 가까우며 탄광 및 석탄 관련 자료를 모아놓은 석탄박물관도 볼 만하다. (054)571-7881

경남 창녕 우포마을 - 초록색 늪에서 배우는 자연의 신비

여름엔 물풀이 초록색 울판을 이루는 70만평 규모의 우포늪은 탐사협약에 등록된 국제보호습지다. 생이가래, 자라물, 개구리, 가시연꽃, 부들 등이 자란다. 자연생태체험과 농촌체험을 할 수 있다. 우포마을엔 농기구전시관과 야생화 화원 등이 조성돼 있어 어린이 현장학습으로도 손색이 없다. (055)532-2814

경남 남해 다랭이마을 - 이색적인 층층계단식 다랭이는

다랭이논은 바닷가 절벽을 깎아 평평하게 만든 계단식 논. 앞은 바다, 뒤는 다랭이논 수심층이 층층이 쌓여 있다. 바다와 접해 있어 농촌·어촌의 풍취를 모두 느낄 수 있다. 여름엔 몽돌해변에서 해수욕을 할 수 있다. (055)862-4511

강원도 양양 송천마을 - 산골마을에서 떡 만들기

소나무 숲 사이로 계곡이 흐른다고 해서 '송천(松川)'이란 이름이 붙었다. 송천마을은 '떡 마을'로 더 유명하다. 인절미, 송편, 찹쌀떡 등 다양한 종류의 떡을 전통방식에 따라 직접 손으로 만든다. 떡도 맛보고 제조과정을 배워 볼 수 있다. (033)672-2954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모정불심' 대덕화 보살 이야기 25일 KBS1 TV '피플 세상속으로'

분지 525호 A26면에 '모정불심(母情佛心)'으로 소개됐던 대덕화 보살(91·이순덕·사진)과 아들 지범 스님의 이야기가 8월 25일 방영되는 KBS1 TV '피플 세상속으로'(목 19:30)에 소개된다.

대덕화 보살은 19살에 시집가 9남매를 낳았으나 막내 아들 지범 스님(서귀포 불광사 주지)만 빼놓고 모두

서른을 넘기지 못하고 단명했다. 지범 스님이 13살 때 백양사로 출가하자 대덕화 보살은 '나무아미타불 정진'과 '일배일자(一日一字)' 사경하듯 한 땀 한 땀 아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수십년동안 발상보와 손수건을 만들어 주위에 나눠주고 보시행을 펴는 사연 등이 소개된다.



6살 꼬마에게 전쟁은 흥미진진하기만 한데...

로렌조의 밤 감독, 파울로 따비아니 출연, 마기리타 로저노 상영시간: 107분 등급: 15세 이상

'태극기 휘날리며' '진주만' '블랙호크 다운'.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전쟁영화라는 점과 '깨지고 부수고 폭발하는' 식의 정통과 전쟁영화라는 점. 하지만 '로렌조의 밤'은 다르다. 전쟁터의 대규모 '학살'을 동화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시선으로 담아냈기 때문이다.

전쟁의 포화가 한풀 쉼인 8월 어느 날, 독일군의 지배 아래 놓여 숨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던 마을사람들 사이에 곧 미군이 들어와 독일군을 몰아낼 거라는 소문이 퍼진다. 퇴각을 준비하는 독일군들은 마을을 통해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하며 폭파될 집집마다 녹색 신자기를 그려놓는다. 중요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한 편은 마을에 남고 다른 편은 마을을 떠난다. 엄마와 함께 피난길을 나선 6살 꼬마수녀 체칠리아는 한밤중에 까만 옷을 입고 하얗고 검은 일이나 어른들과 함께하는 수확서리, 밀밭에

서 벌어지는 파시스트와의 육박전까지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든 일이 흥미진진하기만 한데...

영화는 등장인물의 클로즈업과 멀리서 이들을 찍는 통속 장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역사적인 비극을 개인의 주관적 기억으로 담아낸다. 개개인들에게 서로 다른 인상과 기억으로 각인된 역사는 사실적인 기록이 답을 수 없는 삶의 원형적 생기를 포착한다. 현실과 역사를 중심으로 이 작품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아마 초연(齣演)의 상처가 있는 우리에게 영화의 정서를 공감각적인 동심의 눈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노병철 기자

전시

20세기 한국미술 흐름 한눈에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미술 100년展'

국립현대미술관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8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국미술 100년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조선왕조의 몰락부터 개화기, 일제침략, 광복을 거쳐 4.19 이전까지의 회화와 조소, 공예, 사진 등 8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100년 동안 전개된 한국 미술의 궤적을 문화사적 맥락에서 접근해 각 시기에 따라 우리 미술의 발걸음을 조명한다.

이 전시회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은 최치원의 '결인과 꽃'과 박수근의 '맹견도'와 김중태의 '노란저고리'. 또 최치원의 '결인과 꽃'은 갈빗대를 드러낸 채 꽃을 들고 가는 결인과 그를 피하듯 물동이를 이고 가던 소녀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을 단색으로 대비시킨 한국 최초의 목판화다.

이번에도 시대별로 신문, 잡지 등 인쇄물과 생활사 시각 자료들도 전시돼 미술사적 흐름과 함께 20세기의 시대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돼 있다. (02) 2188-6000



김중태 작 '노란저고리'. 캔버스 유채 52×44cm.

김주필 기자 jkim@buddhapia.com

공연

3색 아이스쇼 골라 보세요

뮤지컬·발레·테마쇼 등 개성있는 무대 선보여

이번 주말 뮤지컬 발레 테마쇼 등으로 꾸며지는 3색 아이스 쇼의 진수를 맛보자.

제일 먼저 지난해 첫 공연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디즈니 온 아이스'가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8월 19일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빙판 위의 열대 밀림'이라는 독특한 주제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28일까지 디즈니 애니메이션 타잔 정글북 라이온킹의 주인공들을 빙판으로 불러낸다. (02)2113-6869

'호두까기 인형'(8월 23~25일) '잠자는 숲 속의 미녀'(8월 26~28일) 등 정통 클래식 발레를 아이스 발레로 승화시킨 샹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이 선보이는 2005 아이스발레는 2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특별무대에서 첫 공연을 연다. (02)548-4480

24일부터는 볼쇼이아이스쇼가 '신데렐라' '메리 포핀스' '캐츠' 등 동화와 유명 뮤지컬 테마를 빙판 위의 예술로 승화시킨다. 특히 메리 포핀스는 아이스 발레와 서커스를 접목시켜 주목받는 테마 중 하나이다. (02)368-1515 김지연 기자



샹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이 선보이는 정통 클래식 무대 '호두까기 인형'

방송 프로그램

<p>BBS 101.9 MHz</p> <p>22일 06:00 불교강좌</p> <p>23일 06:25 오늘은 좋은 날</p> <p>24일 11:05 아름다운 초대</p> <p>25일 07:05 아침저널</p> <p>26일 09:05 행복한 미소</p> <p>27일 14:05 낭만라디오</p> <p>28일 10:00 라디오 법회</p>	<p>Bn 101.9 MHz</p> <p>22일 04:00 한국의 명찰</p> <p>23일 01:45 TV법회</p> <p>24일 15:50 열린마당</p> <p>25일 17:30 산중대담</p> <p>26일 20:30 명상음악산책</p> <p>27일 08:20 불교TV메디컬</p> <p>28일 20:00 또 다른 수행 '사경'</p>
---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낭만라디오(8월 26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를 다시 틀어 볼 수 있는 시간. 나른함이 밀려오는 오후 2시.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불교텔레비전: 임영란 장미화의 행복충전(8월 28일 21:45~22:45)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임영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들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02)2004-8218~9

LED라이트 알람시계

어두운 밤에 빛을 내는 LED라이트 알람시계. 알람시간이 되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리며 몸체에서 LED라이트가 점등되면서 시계를 비춘다.

눈에 부담이 없고 밝은 빛을 내 차세대 전구로 각광받고 있는 LED라이트를 시계에 적용해 선공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LED라이트 알람시계. 크기: 129×128×62mm 색상: 화이트 핑크 그린 가격: 1만 8천원